

식물추출수로 만든 천연화장품 브랜드 표방

2011년부터 해외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공략

글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사업팀 장준은 · 이해진 연구원



2005년 3월, 100% 핸드메이드 천연비누 브랜드에서부터 출발한 영습스토리는 유기농 천연 원료에 초점을 맞춰 제품 개발에 힘쓴 화장품 중소기업이다. 많은 국내외 대형 브랜드가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천연 원료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원료개발과 특허 획득에 성공하여 업계에서 ‘작은 거인’으로 거듭났으며, 이제는 국제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영습스토리의 서민규 대표는 “식물추출수를 베이스로 한 새로운 브랜드 ‘THE PLANT BASE’를 런칭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리얼 천연화장품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싶다”고 하였다.

신선한 자연의 힘을 담아 만든 천연화장품

영습스토리는 ‘자연으로부터 빌려온 아름다움’을 담은 깨끗하고 신선한 원료를 이용해 천연화장품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식물추출수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 원료는 최대한 배제하여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까운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는 녹색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용 고객의 신뢰를 얻어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우량 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영습스토리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 성분 대신 천연 추출물, 에코서트(ECOCERT) 인증을 받은 유기농 원료,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저 자극, 고기능성 천연화장품을 개발해 왔다. 병풀잎수, 대나무 추출수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은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를 통해 우수성이 확인되었고, 입소문을 통해 꾸준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꾸준한 온라인 고객관리와 사용자가 작성한 후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여드름 케어 라인 이외에도 모공관리, 화이트닝, 수분보충, 영양공급 등 피부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개발하였다. 신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피드백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제품에 사용되던 정제수를 병풀잎수와 대나무 추출수 등과 같은 고기능성 천연 식물추출수로 업그레이드 하여 제품의 품질을 한층 높였다. 천연이기에 더욱 효과적이고 피부에 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영습스토리의 목표이다.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천연화장품’ 대표 주자 목표

서민규 대표는 2014년을 새로운 해외 시장의 발굴과 진출의 해로 정하고 그 동안 총력을 기울여 만든 천연 식물추출수 제품을 가지고 국내외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 또한 집중 공략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영습스토리는 국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 미용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견문을 넓혀왔다. 2011년 광주우 뷰티 엑스포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해외 미용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영습스토리는 2013년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말레이시아 플래그십스토어에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플래그십스토어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자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영습스토리는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마켓을 통하여 활발하게 제품을 판매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와 러시아에 수출을 진행하며 세계무대로 나아가고 있다.



▲ 말레이시아 플래그십스토어



▲ 다양한 해외 박람회 참가

고기능성 천연화장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영습스토리의 서비스 이념 중 하나인 '합리적인 가격'은 광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이고 제품에 투자함으로써 얻어진다. 독자적인 천연특허원료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적정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경쟁력을 얻고 있다. 국내 최대의 화장품 연구, 개발 업체인 '한국콜마' 및 '에버코스', 'HNG', '그린코스' 등의 CGMP인증 업체에서만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일자 관리와 짧은 유통기한을 유지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판매보다 장기간 연구개발에 집중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대형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한 판촉 홍보보다는 독자적인 천연재료 분야에 한 우물을 판다는 서 대표와 직원들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제품라인이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창조해낸다는 영습스토리만의 자부심을 엿볼수 있는 부분이다. ■

영습스토리는?



▲ 영습스토리 서민규 대표이사

식물추출수 천연화장품 브랜드 영습스토리는 천연비누를 시작으로, 2007년 트러블 라인인 AC Clear 라인을 런칭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장품 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 이후 다양한 라인의 천연화장품들을 런칭 하였고 그 결과 2010년 녹색경영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에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해외 여러 뷰티화장품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영습스토리는 자연에서 추출한 오가닉 원료, 천연 식물추출수를 사용해 모든 피부에 안전하고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로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 최상의 효과를 가진 천연화장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